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1월 미 생산자 물가 여전히 높아
- FinanceYahoo: 뉴욕 연준 “미 소비자 부채 약간 상승...자동차 용자 악화”
- WSJ: 인플레이가 트럼프 당선 도왔지만, 이제는 ‘트럼프 책임’
- FinanceYahoo: 미 노동시장 안정에 신규 실업청구건 감소

###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 규제 완화로 작은 은행 합병 ‘가속화’ 가능성
- CNBC: 미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낮아

### [미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상호관세 오늘 목요일 1시에 발표한다”
- FinanceYahoo: BofA “관세 조치로 국가들 보복하면 결국 달러 약세”

### [부동산]

- WSJ: 구매자 없어 주택 판매 미룬다

### [오일과 기후]

- WSJ: IEA, 석유 수요 전망 상향...공급 과잉은 축소 예상
- TechCrunch: 데이터 센터, 절약으로 전력 76GW 확보 가능

### [원자재]

- CSIS: 한국,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이 되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혼다, 닛산 합병 무산...다른 파트너 물색
- Bloomberg: 허츠, 전기차 투자 실패
- WSJ: 머스크 “OpenAI는 비영리기관으로 남아있어야”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Producer-Price Inflation Stayed Hot Last Month

#### 1월 미 생산자 물가 여전히 높아

- 기업들이 책정하는 생산자 물가가 1월에도 여전히 높아 어제 수요일 강한 소비자 물가 발표에 이어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을 재확인했다. 이 지표 중에 일부 항목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포함된다.
- 생산자 물가지수는 12월 0.5% 상승에 이어 1월에 0.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0.3% 상승을 예상했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3.5% 상승했다.
-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12월 현재 2.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의 목표인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WSJ 기사

**FinanceYahoo: NY Fed finds rising consumer debt amid some fraying for car loans****뉴욕 연준 “미 소비자 부채 약간 상승...자동차 융자 악화”**

- 뉴욕 연준은 오늘 목요일 발표에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부채 규모가 지난해 4분기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동차 융자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 뉴욕 연준은 미 소비자들은 안정된 가계 대차대조표와 모기지 융자에 힘입어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높은 이자율과 가격이 상승한 자동차 관련 융자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계층과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매달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뉴욕 연준은 미 가계 대비 부채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 FinanceYahoo 기사

**WSJ: Inflation Helped Trump Get Elected. Now It's His Problem.****인플레이가 트럼프 당선 도왔지만, 이제는 ‘트럼프 책임’**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 문제를 공격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플레이가 트럼프의 골치 아픈 이슈가 되고 있다.
- 현재 인플레이는 연준의 목표인 2% 보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공약대로 관세와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인플레이가 2% 내외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관세와 감세 정책을 시행해도 인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시간당 임금도 높은 상황이다.

## WSJ 기사

**FinanceYahoo: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 amid stable labor market****미 노동시장 안정에 신규 실업청구건 감소**

- 지난주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감소해 노동 시장이 2월 초 현재 안정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연방 노동청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2월 8일에 끝나는 주의 계절조정치가 적용된 실업청구건수는 7천건 줄어든 21만3천건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21만5천건보다 낮다.

- 이 수치는 현재 해고가 낮은 상황과 일치하고 있으며,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분간 중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연준은 트럼프의 불법 체류자 추방, 수입품 관세와 감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Trump Deregulation to Speed Bank Consolidation, Bob Diamond Says** 트럼프 규제 완화로 작은 은행 합병 '가속화'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의 합병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Atlas Merchant Capital의 최고 책임자인 Bob Diamond 전망했다.
- 그는 오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2, 3년에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미국 은행들의 숫자는 현재 총 4천5백개에서 1천개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 현재 많은 지역 및 커뮤니티 은행들은 기술과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CNBC: 10-year Treasury yield eases despite a second concerning inflation report** 미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낮아

-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8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한 4.554%를 기록 중이며, 2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321%를 유지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은 반비례한다.

CNBC 기사

### [미 행정부]

#### **Bloomberg: Trump Says He'll Announce Reciprocal Tariffs at 1 p.m. Thursday**

## 트럼프 “상호관세 오늘 목요일 1시에 발표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목요일 오후 1시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보다 관세율이 더 높은 국가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이 같은 예고를 발표했다.
- 그는 아직 관세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나 발효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 그는 소셜 미디어에 “위대한 3주간... 아마도 지금까지 최고였지만, 오늘은 중요한 상황. 상호 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게시했다.

Bloomberg 기사

## FinanceYahoo: US Tariffs Will Weaken Dollar If Nations Strike Back, Bank of America Says BofA “관세 조치로 국가들 보복하면 결국 달러 약세”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초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종국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Bank of America는 전망했다.
- 이 은행의 G-10 FX 전략 책임자인 Athanasios Vamvakidis는 “달러는 관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 부과로 다른 국가들이 보복할 경우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미국의 관세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는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교역 흐름이 흔들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즉,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
- 한편 블룸버그 현물 지수에 따르면 달러는 지난 9월 하반기에 저점에서 7% 상승했다. 이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정책 천명 때문이다.

FinanceYahoo 기사

## [부동산]

## WSJ: As Buyers Fail to Show Up, More Homes Are Being Pulled From Sale 구매자 없어 주택 판매 미룬다

- 부동산 분석 회사 CoreLogic에 따르면 작년 12월, 7만3천채의 주택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매물 등록이 철회됐다. 매물로 나온 주택 중 약 10%에 해당하며, 2023년 12월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다.
- 매물 등록이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표면적인 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택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매자가 많지 않다. 2024년 주택 판매량은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만약 올해 봄에 판매자들이 다시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면, 미국 주택 가격에 하락 압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오일]

### WSJ: IEA Slightly Lifts Oil Demand Outlook, Says Supply Surplus Narrowing

IEA, 석유 수요 전망 상향...공급 과잉은 축소 예상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기존 하루 105만 배럴 증가에서 하루 110만 배럴로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 OPEC은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4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또한 IEA는 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할당 준수로 공급 과잉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IEA에 따르면 OPEC+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28만 배럴, OPEC 12개 회원국은 공급량은 하루 48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OPEC은 4월부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 IEA는 “올해 초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졌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석유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 TechCrunch: Data center tweaks could unlock 76 GW of new power capacity in the U.S.

데이터 센터, 절약으로 전력 76GW 확보 가능

- AI가 성장하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만약 미국에서 매년 하루 정도 몇 시간 동안만 데이터 센터 전력을 90%로 조금만 제한해도 76 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 이는 쇼핑몰, 대학, 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 더운 여름날처럼 전력 수요가 최고치일 때 사용량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 데이터 센터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동 시간과 성능 향상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연하게 전력 사용을 조정하면 수요가 많을 때 여유롭게 대처하기 좋다.

TechCrunch 기사

[원자재]

## CSIS: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Under the South Korean Leadership

한국,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이 되다.

- 2024년 7월,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이 되었다. MSP는 글로벌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13개 파트너 국가가 협력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 최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입장에서 광물 및 자재 공급망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40년까지 광물 시장 가치가 4천2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주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국이다. 하지만 중요 광물의 9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광물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선 공급망 강화를 위해 공급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런 점에서 국내 광산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 무역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나라는 경제 안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광물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 이번에 MSP 의장직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것은 중요 광물 가치 사슬에 대한 공통의 약속을 강조하고, 한국이 광물 공급망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SI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Honda, Nissan End Merger Talks, Leaving Nissan to Seek Other Partners

혼다, 닛산 합병 무산...다른 파트너 물색

- 혼다와 닛산의 합병 계획이 무산됐다. 본래 혼다와 닛산이 평등한 관계로 합병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혼다는 닛산보다 시장 가치가 약 5배 높다.
- 닛산 CEO 마고토 우치다는 “우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혼다의 일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닛산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
- 대표적인 후보로 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이 있다. 폭스콘 회장 Young Liu는 닛산의 프랑스 파트너인 Renault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nault는 현재 닛산의 지분 17%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신택 회사를 통해 18.7%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Hertz Tumbles With Worse-Than-Expected Loss on EV Sale Plan

### 허츠, 전기차 투자 실패

- 오늘 목요일, 렌터카 대기업 Hertz의 2024년 4분기 수익 설명이 있었다. Hertz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잘못된 투자였으며, 29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 Hertz는 “전기차는 유지비가 비싸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모델이었다. 따라서 잘못된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3만대의 전기차를 모두 판매했고, 대신 유지보수가 적은 새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Hertz는 주당 1.18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73센트 손실을 예상했었다. Hertz 주식은 한 때 14%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오전 11% 하락한 수준인 3.79달러에 거래됐다.

Bloomberg 기사

## WSJ: Musk Says He Will Pull Bid if OpenAI Remains a Nonprofit 머스크 “OpenAI는 비영리기관으로 남아있어야”

- 일론 머스크가 OpenAI가 비영리기관으로 남는다면, 974억 달러의 입찰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샘 알트먼은 2015년 함께 OpenAI를 설립했었지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현재 법정 다툼 중이다.
- 샘 알트먼은 머스크의 입찰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SNS를 올렸다. OpenAI는 논평을 거부했다. 머스크는 OpenAI가 기존의 약속대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 2019년 머스크가 OpenAI를 떠난 후, 알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았다.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의 영리 부문 수익 지분 49%를 얻기 위해 130억 달러를 투자했었다.

WSJ 기사

### [보고서]

**뉴욕증시, 예상밖 물가 상승에 하락...다우지수 0.5%↓  
S&P 0.3%↓·나스닥은 보합...금리인하 기대 축소에 채권금리 급등  
M7 고평가 논란도 부담..."추가 금리인하 없을 가능성에 시장 압박"**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들어 예상 밖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09포인트 (-0.50%) 내린 44,368.56에 거래를 마쳤다.

25. 2. 13. 오후 1:04

Email from KOCHAM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53포인트(-0.27%) 내린 6,051.9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09포인트(0.03%) 오른 19,649.95에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